

지방자치단체 관광·여가 산업을 위한 역량 분석 보고서

- 결과 해석 매뉴얼 -

2020.12.

목차

1. 지역별 역량 개발 환경 분석	3
가. 지자체 개요.....	3
나. 공공·금융 빅데이터로 본 지역 특성.....	3
다. 지역특화 콘텐츠	4
라. 기대/추천자원.....	4
마. 지역 이미지 프로파일.....	6
2. 지역별 만족도 평가.....	7
바. 전반적 만족도	7
사. 자원 풍족도 및 환경 쾌적도 상세	8
3. 지역별 여행객 특성 및 여행행태	8
4. 표본 수	9

1. 지역별 역량 개발 환경 분석

각 자치단체가 여행지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요약·정리하였음. 주요 내용은 ▲공공 및 금융 빅데이터, ▲연상 단어, ▲지역 이미지, ▲추천 관광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 지자체 개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대상 지역의 기초특성 정보를 수집해 정리함.

구청 주소/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02) 2148-1114
홈페이지 주소	https://www.jongno.go.kr
공식 SNS 주소	https://blog.naver.com/jongno0401
자치단체장명/소속	김영중/더불어민주당

나. 공공·금융 빅데이터로 본 지역 특성

면적과 인구는 KOSIS 국가통계포털을 출처로 함.

면적(km ²)	24	605	100,378
인구(천명)	151	9,729	51,850
인구(%)	0.3	1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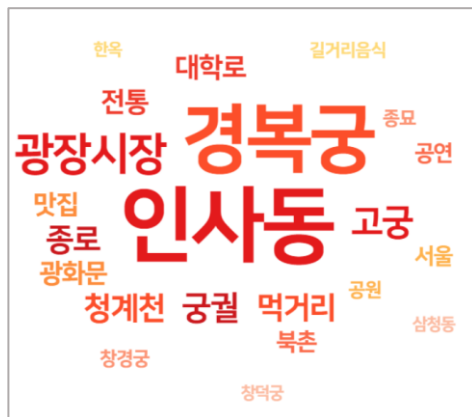
2019 역량 평가 조사 응답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폰 번호를 기준으로 KCB(코리아크레딧뷰로) 금융빅데이터를 개인수준으로 매칭함. 금융빅데이터 소득·소비는 대부분 정적 편 포인 것을 감안해 평균치와 중위값을 모두 제시함.

개인 수준의 매칭을 통해 여행객의 금융통계를 산출했으며, 유사한 작업을 자동차, 이동통신, 쇼핑, 체감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개인연소득 (만원)	3,894	3,703	3,465
아파트매매가 (거주자 기준, 만원)	72,401	81,925	37,516
개인카드사용액 (만원)	1,697	1,781	1,634
해외카드사용경험 (1년내, %)	35.9	35.2	28.4
해외카드사용액 (사용자 기준, 만원)	230	156	111

다. 지역특화 콘텐츠

2019년 8월 일반 소비자 55,042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별 관광·여가산업 역량 평가 조사(이하 역량평가 조사)'에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5개 측면(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 등)에 대해 5점 척도(매우 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 우수)로 평가하게 함. 그 중 우수하다고 평가한 4-5점 응답자들에게 5개 측면 자원별 추천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고, 출현 단어의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20개를 선정하고, Cloud Mapping한 결과임.



라. 기대/추천자원

'역량 평가 조사'(2019년 8월 조사, 표본규모 55,042명) 결과로 여행자와 현지인이 추천하는 관광자원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자원인지를 비교 분석하였음. 추천자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음.

- [1단계] 5거리: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
- [2단계] 14차원: 놀이/테마공원·온천, 취미·운동 활동, 축제/행사, 공공시설/건축물, 유흥/번화가/대학가, 재래시장/쇼핑몰, 음식(점), 특산품(농수산물), 토산품(공예, 기념품), 최신/브랜드 제품, 자연풍경, 역사·유적, 숙박·휴양 시설, 건강/미용(온천, 마사지) 등
- [3단계] 45 활동/장소: 놀이/테마공원, 워터파크/온천, 민속촌, 영화/드라마 세트(촬영)장, 등산, 낚시, 골프, 겨울 레저 스포츠, 물놀이 및 해양 스포츠, 지역축제, 스포츠/운동 경기, 음악/연극 공연, 건축물/조형물, 공원/광, 박물관/미술관, 유흥(술집, 클럽 등), 거리/대학 문화, 재래시장, 쇼핑몰, 전통/특색 음식, 길거리 음식, 유명 식당-레스토랑, 유명 카페-베이커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토산품(공예, 기념품 등), 최신/브랜드 제품, 산/계곡, 바다/해변, 강/호수, 들/습지, 꽃/나무, 마을/주거지, 궁궐/성/묘, 종교/신앙, 문화유물, 인물/사건, 민박/게스트하우스/모텔, 콘도미니엄/리조트, 캠핑/야영장, 펜션, 호텔, 온천, 마사지 등

			중로		서울		전국
			비율(%)	등급	비율(%)	등급	비율(%)
역사/유적	궁궐/성/묘	현지인	60.5	A+	13.7	A	8.2
	문화유물		27.3	A+	6.4	D	9.6
	인물/사건	현지인	8.5	C	5.8	D	8.0
	종교/신앙	현지인	8.1	C	4.4	D	9.1
음식(점)	유명 음식점/식사료		41.5	A	33.8	B	23.1
	길거리음식		33.3	A	20.1	B	14.0
	재래시장	현지인	32.2	C	19.9	D	30.9
	전통/특색 음식	현지인	24.3	D	8.4	D	30.6
	유명 음식점/디저트류		20.4	A	22.6	A	11.0
공공시설/건축물	박물관/미술관	현지인	37.6	A+	14.1	B	11.7
	공원/광장	현지인	27.6	A	24.6	B	18.5
	건축물/조형물		24.4	A+	10.0	A+	6.6
변화가/대학가	거리/대학 문화	현지인	38.1	A+	24.1	A+	10.3
	유흥(술집,클럽등)	현지인	16.4	A	17.5	A+	8.0
축제/행사	음악/연극 공연		31.8	A+	14.9	A+	6.5
	지역축제		9.2	D	11.0	D	27.5

여행자에게는 각 기초자치단체를 여행하면서 특히 기대했던 자원/활동이 무엇이었는지, 현지인/연고자에게는 그 지역을 찾은 여행자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자원/활동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를 토대로 했음. 각 자원별로 여행자 평균과 현지인 평균을 구하고, 이를 단순평균하여 해당 자원의 추천률을 229 시군구별로 산출함.

광역시도의 경우 16시도(세종시 제외) 중 상위권에 속하는 자원을 추천률, 전국 순위, 전국 평균 추천률, 전국 1·2위 광역시도 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함.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국적으로 상위 30% 이내에 드는 자원을 제시하고, 기초단체 및 소속 광역시도의 추천률 및 전국에서의 등급, 전국 추천률을 동시에 표시해 어떤 자원이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음.

등급은 전국 순위를 기준으로 A+, A, B, C, D 5개로 분류했으며 기준은 아래와 같음.

등급	범위	해당 순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A+	상위 5%	1위	1위~11위
A	상위 5~15%	2위	12위~34위
B	상위 15~30%	3위~5위	35위~69위
C	상위 30~60%	6위~10위	70위~137위
D	상위 60% 이하	11위~17위	138위~22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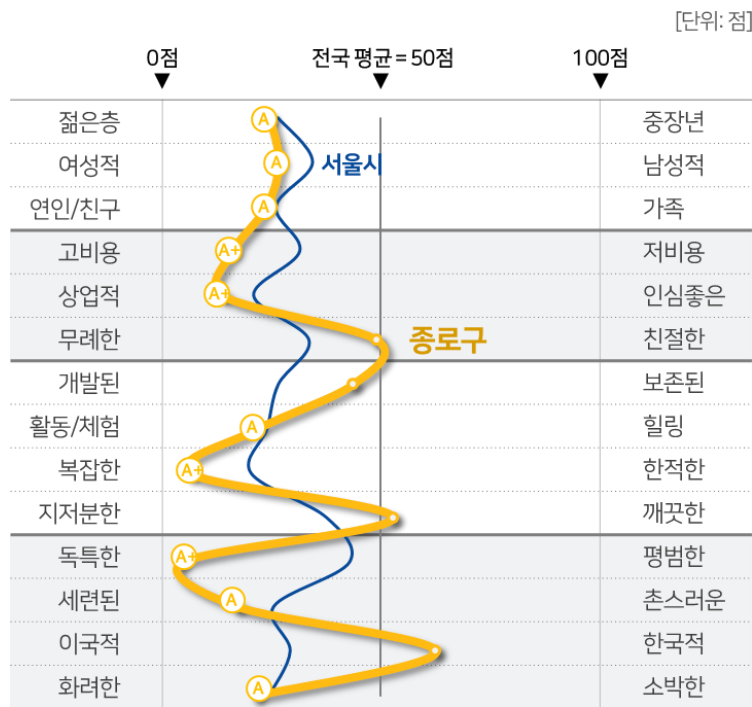
마. 지역 이미지 프로파일

‘역량 평가 조사’(2019년 8월 조사, 표본규모 55,042명)에서 각 기초자치단체가 14개의 양극 형용사 척도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5점(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보통/반반이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답하게 하였음.

각 기초자치단체 여행자와 현지인의 산술평균을 14개 형용사 척도 각각에 대해 구하고, 평균을 구해 점수화 했음. 지역 이미지 속성간 기초자치단체별 편차가 상이해 229 기초자치단체의 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6으로 표준화한 결과를 사용함.

광역자치단체와 전국의 점수는 구성 기초자치단체 점수의 산술평균, 종합 점수는 여행자와 현지인의 산술평균으로 계산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표준화된 점수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부여했고, 순위를 기준으로 A+, A, B, C, D의 5개 등급으로 분류함. 등급 분류 기준은 기대/추천자원과 같음.



2. 지역별 만족도 평가

각 자치단체가 여행지로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요약·정리하였음. 주요 내용은 ▲만족도, ▲관광자원 풍족도, ▲관광환경 쾌적도이며, 여행객과 현지인의 평가를 비교분석함.

바. 전반적 만족도

‘역량 평가 조사’(2019년 8월 조사, 표본규모 55,042명) 결과로 ▲종합만족도, ▲추천의향도, ▲자원풍족도, ▲환경쾌적도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종합만족도는 체감만족도와 추천의향도의 산술평균 값이며, 추천의향도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함. 체감만족도는 여행객에게만 물었으며, 추천의향도는 여행객-현지인 모두에게 조사함. 각 단일문항은 ‘1점-2점-3점-4점-5점’을 ‘0점-250점-500점-750점-1,000점’으로 환산하여 1,000점 만점으로 지표화하였음.

자원풍족도는 여행자와 현지인이 5점 척도(매우 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 우수)로 측정한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의 5개 차원의 점수와, 종합만족도와의 관계로 중요도를 산출함(현지인은 종합만족도 대신 추천의향도 단독 사용). 자원풍족도는 5개 차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각각의 점수에 중요도를 반영해 1,000점 만점으로 지표화하였으며, 환경쾌적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였음.

기초단체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광역 점수, 전국 점수를 구함.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전국 평균, 소속 광역단체의 점수와 순위, 그리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점수(1,000점 만점)와 등급, 광역 내 순위와 전국 229 기초단체 기준 등급을 적시하였음. 이를 통해 각 기초자치단체가 광역 내에서는 어떻게, 전국적으로는 어떤 수준인지 쉽게 알 수 있음.

(점수: 1,000점만점)

	점수	차이			순위 (서울 25개구中)	등급 (전국시군구中)
		종로-서울	종로-전국	여행-현지		
종합만족도	678	+65	+40	-	2	B
추천의향도	693	+103	+63	-52	2	B
자원풍족도	620	+75	+40	-5	2	B
환경쾌적도	617	+23	+23	-48	7	B

사. 자원 풍족도 및 환경 쾌적도 상세

‘역량 평가 조사’ (2019년 8월 조사, 표본규모 55,042명) 결과로 각 자치단체의 관광자원이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실거리의 5개 차원 각각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5점 척도(매우 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 우수)로 평가하였음.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5개 차원 각각 별로 표준화(평균 50, 표준편차 16)하였으며, 광역시도의 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표준점수의 산술 평균으로 이 점수를 토대로 각 광역자치단체의 순위와 등급, 산하 각 기초자치단체의 시도 중 순위와 전국에서의 등급을 제시함. 등급의 기준은 지역 이미지 프로파일 및 여행객 만족도와 동일하게 적용함.

환경쾌적도는 여행환경의 우수한 정도를 교통, 물가, 청결, 편의, 안전의 5개 측면을 기준으로 평가 받았으며, 처리의 모든 절차는 ‘자원 풍족도’와 동일함.



3. 지역별 여행객 특성 및 여행행태

컨슈머인사이트의 2019년 ‘주례 여행행태 및 계획 조사’(매주 500명, 연 26,000명) 중 특정 지역 17 시도, 229 시군구를 주 목적지로 3개월 내에 숙박여행 한 적이 있는 사람을 여행객으로 정의함. 2019년 조사의 3개월 내 국내여행을 다녀온 경험은 평균 69.0% (사례수 26,000명)임. 여행객 특성은 성별, 연령대, 거주(출발)지역 별 구성비를, 여행행태는 일정, 동반인, 주 목적, 경비, 숙박장소 등을 분석함.

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서울 25구, 부산 16구/군, 대구 8구/군, 인천 10구/군, 광주 5구, 대전4구, 울산 5구/군 등)은 별개 목적지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구/군별 분석 자료가 없으며, ‘역량 평가 조사’의 결과로 대체함.

‘주례 여행행태 및 계획 조사’ 조사는 연간 26,000명의 대규모 표본 조사로 국내 관광 분야 실태 조사 중 가장 큰 규모임. 그러나 229 시군구별 내방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에는 제한이 있어 여행객의 평소 소득·소비정보를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금융 빅데이터로 보완함. 향후 통신 빅데이터까지 결합해 여행객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자 함.

4. 표본 수

다수의 하위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이 주 목적인 조사의 설계(특히, 표본설계)에는 어려움이 있음. 여행자와 현지인(연고자)이 평가하고, 추천하는 내용을 229개 시군구별로 만든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과제로 표본 특성(여행자, 현지인)상 확률 비례추출은 설계 불가능하고, 할당 추출도 불가능함. 이를 감안하여 각 지자체별로 응답자 수가 비슷하게 되는 할당 규칙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함. 극소수 지역(현지인 - 경북 울릉군; 여행자 - 경기 동두천시, 서울 금천구, 서울 양천구, 인천 동구)을 제외하면 최소 표본(30명)을 충족시킬 수 있었음.